



‘양막 라섹수술’

심한 안구건조증 시력교정 효과적

시력회복·통증억제 도움 고도근시환자도 교정 가능

최근 ‘양막 라섹수술’이라는 새로운 시력 교정수술이 시술 후, 시력회복 및 염증과 통증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근시환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약간씩 눈이 시리고 콧물 누시는 정도의 약한 증상을 앓고 있던 사람들도 가을, 겨울철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등 심각한 안구건조증 증상에 고통을 겪게 된다.

그나마 시력이 좋은 사람들도 안구건조증에는 속수무책인데 시력이 나쁜 사람들의 경우엔 불편함이 배가 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안구건조증 증상이 더욱 심각하다. 콘택트렌즈가 눈의 수분을 빨아들여 안구건조증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으며 콘택트렌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력교정술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양막 라섹’은 안구건조증이 심한 환자들이나 고도근시환자들의 시력교정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양막라섹’은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막과 PRP 자가혈청 점안을 통해 수술 후의 안구건조증을 완화시켜주는 시력교정술로 기존 라섹수술의 단점이었던 통증과 각막흔타, 느린 회복 등 단점을 개선했다. 이는 양막과 PRP를 비롯해 최첨단 엑시머 레이저 장비 사용으로 각막상피의 회복 및 빠른 상피의 유착을 유도한다.

라섹수술은 많은 각막으로 인해 라섹수술이 위험한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널리 시술 되고 있지만 수술 후 통증이 있고 시력회복이 다소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을 망설이는 근시환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막 라섹수술은 기존 라섹수술의 단점인 통증을 줄이고, 시력회복 속도를 향상시키는 시술법으로 알려져 그 시술법과 효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막 라섹수술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 양막이란 과연 무엇일까?

양막이란 태반에 구성된 얇은 층의 투명 한 막으로써 풍부한 영양분과 함께 염증을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이 기존 라섹수술의 단점인 통증을 줄이고, 시력회복 속도가 빠른 ‘양막 라섹수술’을 하고 있다.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이미 각막·결막 등에 발생하는 다양한 안과질환의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양막라섹은 이러한 양막의 효능을 시력교정수술에 접목시킨 시력교정수술이다. 결국 라섹수술 후 양막의 성분을 환부에 접목시켜 각막 및 결막의 줄기세포를 보호하고 상처치유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이 시술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양막이 가지고 있는 염증억제 성분과 각종 성장인자를 안구표면에 전달해 통증의 감소와 빠른 각막의 재생을 돕게 된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은 “양막 라섹수술은 항염증 물질이 풍부해 상처 치유와 2차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며 “이는 라섹수술 초기의 통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상처 재생물질이 풍부해 미세흔타를 감소시켜 우수한 최종 시력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장비 성능에서부터 외부적인 요인까지 점차 빠른 속도로 수술법이 발전하면서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본인이 수술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병원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술 전에 반드시 장비와 경험을 모두 다 꼼꼼하게 비교해야 하지만 가끔적이면 풍부한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여성암, 정기검진으로 초기에 잡자

‘자궁암’ 세포진 검사로 간단히... ‘유방암’ X선·초음파 병행

자궁암은 물론 자궁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궁암 검사는 세포를 채취하기만 하면 끝이다. 유방암 검사 역시 간단한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는 절차가 복잡하지도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서동수 원장에게 부인과 검진에 대해 알아본다.

◇준비할 것 없고, 검사비도 저렴한 ‘자궁암 검사’=자궁암 검사는 자궁경부의 암을 진단하는 검사이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자궁암 위험도 커지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자궁암 검사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세포진 검사다. 자궁경부의 탈락 세포를 이용하여 정상을 벗어난 세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검사도 간단하며 단시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자궁 세포진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면 자궁경부를 확대해서 관찰하는 확대경 검사와 조직검사로 최종 진단을 내린다. 최근에는 HPV DNA 검사로 세포에 HPV유전자가 있는지 파악해 좀 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궁암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자궁암 검사를 받음으로써 자궁암의 발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암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는 보통 1번에서 5번까지 5년

계로 나오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암의 가능성이 높다. 1번은 완전한 정상이고, 2번은 이상이 있지만 암과 관련된 악성 변화는 없다. 따라서 음성으로 분류되어 정상이지만, 다시 한 번 검사하는 정도의 관심은 가져야 한다. 3번은 암을 암시하는 세포들은 보이지만 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4번과 5번은 암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다. 2번은 재검사가 필요하고, 3번부터는 정밀 검사 및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유방암 검사’는 유방촬영과 초음파 검사로=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방암 검사는 유방 진찰과 유방 촬영이고 필요에 따라 유방 초음파, 자기 공명검사(MRI)등을 더하게 된다. 유방 촬영은 가장 일반적인 유방암 검사로 X선 촬영이 유방 내부 조직을 보여준다.

동양 여성의 유방은 조직이 치밀해서, 유방촬영을 했을 때 필름이 하얗게 나오는데 등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의 나이가 많아지면 유방 내 치밀도가 떨어지고 지방 조직의 양이 증가해 연령대에 따라 유방 촬영 양상이 달라진다.

유방 촬영 검사만으로 암 여부를 알기 어려워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음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음파는 검사 절차가 간단해서 유방 촬영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사법이다. 게다가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부담도 없다. 유방촬영은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봐야 하는 데 반해, 유방 초음파는 화면으로 유방 조직 내 의심스러운 부분을 옮겨 가며



30대 후반 여성이 유방암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검사인 X선 촬영을 하고 있다.

암 여부를 판단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방에서 잡히는 멍울이 단순 멍울인지, 단단한 멍울인지 구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비교적 작고 치밀한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의 유방을 검사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동수 원장은 “20~30대는 방사선 피폭 부담은 줄이고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면서 “40대 이후에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106주년 리모델링 감사예식



광주기독병원(병원장 박병관)은 개원 106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오전 병원 예배실과 현관로비에서 개원 106주년 기념 및 리모델링 감사예식을 가졌다.

광주기독병원은 1905년 11월 20일 미국 남장로교 의료선교사 놀란에 의해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광주에서 최초로 현대의료를 시작한 병원이다.

광주기독병원은 2009년부터 환자안전과 고객편의에 초점을 둔 ‘더 환자 중심병원’을 추구하며 병원내 각종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이날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조대치과병원, 남구청서 의료봉사활동

조대치과병원(병원장 김병욱)은 법무부범죄예방위원 광주남구지구 협의회(회장 김홍기) 주최로 실시하는 의료봉사활동 및 선도장학금·사랑의 선물 전달 행사에 의료분과 치과 의료봉사팀으로 참여, 최근 남구청 2층 강당에서 치과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치과보철과(정재현 교수, 김종욱 전공의), 치과보존과(황호길 교수, 장승기 전공의), 소아치과(정승윤 전공의), 치주과(이민재 전공의) 총 7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은 추천된 4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틀니 조정, 장애우를 위한 치석제거 및 일반치과 처치 등의 진료를 실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화석시대총장점
황금동 학생회관 뒤 갤러리후문
고기부페전문
대표 한승완
☎(062)232-9191

메기대마왕
서구 쌍암동 CGV건너편
민물요리 전문점
대표 손주식
☎(062)971-8287

내고향비리락칼국수
서구 쌍암동 CGV사거리
보리밥+칼국수=5,000원
팔죽5,000원, 왕만두5,000원
☎(062)972-1315

유미식당
농성동 서문교회맞은편
모범지점업소.이동급식지점업소
한식·중식·안주류
대표 김영성·채덕심
☎(062)369-7913

한진열기
동구 수기동44-1번지
사우나건기스트브제자.황토방찜질방
맥반석.녹차탕사공, 여관목욕탕설비전문
☎(062)232-2923

월산근로자대기소
월산2동 MBC방송국입구 맞은편
철거전문업체.건축의뢰공급.모든건축공사.건축설비
인테리어 리모델링전문.기능력주.이대기.일당일지급
☎(062)351-1311

명문수학
임암동 문화예술회관옆 현대빌딩4층
특목고입시 전문학원.소수정예반
원장님 : 1.교육, 초.중.고.생 수시모집
☎(062)525-1235-6

목화웨딩
동구 불로동 169-1 히딩크호텔입구
웨딩미디어, 스미드 웨딩컨설팅
대표 이현희
☎(062)232-3636

말바우한의원
두암동 841-5 말바우소방소앞
오토.어깨통증.숯통증 각종 통증치료전문
원장 이홍식
☎(062)262-5275

KCC라이프앤진(광주지사)
금남로3가 동양저축은행옆
KT&G 건강브랜드 영업사원모집
☎(070)7533-1007

산수화랑
북구 오치동 31사단 고개마루문화소 맞은편
표구.병풍.액자.족자.주문제작.판매전문
대표 문용채
☎(062)251-5176

대한손세차셀프세차
오치동 서산초등학교맞은편 골목
코팅.광택.실내.외세차.라이닝.타이어교환
엔진해체수리.에어컨수리.오일및선수리
오토오일교환.엔진오일교환
☎(062)261-3267

종로검정고시학원
대의동 71-4 전일빌딩 뒤 문화전당바로옆
성년한글반, 오전·오후·야간반
검정고시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원장 이재운
☎(062)226-2227

무진보
동구 금남로2가 7-3 킷리센터타워
오리 요리 명가
대표 이명옥
☎(062)523-5292

에이스마트백운휴먼시아점
백운동 휴먼시아101동 앞
청과.야채.정육.수산 산지직송판매
각종 잡화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062)672-8580

현대세꼬시
백운동 589-2 석산고입구 건너편
복, 이구탕, 찜전문, 각종회전문
대표 남춘형
☎(062)222-2953

조정근 내과의원
두암동 568-6번지 무등도서관사거리
의학박사 전문의 내과의원
대표 조정근
☎(062)261-4900

영스푸드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각종 음식 전문
대표 정양주
☎(062)224-0894

은암미술관
동구 대의동 32번지 2층
미술관
관장 채중기
☎(062)231-5299

구수향
동구 정동 예술의거리 원불교앞
오리탕, 청국장 예약전문
☎(062)266-7200

경성종합맛데리
각화동 농산물시장 뒤편
경정비 전문, 24시간 출장대기
대표 권선도
☎(062)265-0251